Nature, Our Future!

오대산 국립공원

ODAESAN NATIONAL PARK

오대산의 열 번째 이야기

상원사와 오대암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오대산 국립공원에는 천년 사찰 상원사가 있습니다. 오대산의 주봉인 비로봉 동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상원사는 현재 월정사의 말사(末寺)이나, 국내에서 유일하게 문수동자상을 모시고 있는 문수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보천과 효명 두 왕자가 오대산 중대에서 1만 문수보살을 친견하였다고 하며, 그 후 왕위에 오른 효명태자(선덕왕)가 705년에 지금의 상원사 터에 진여원을 창건함과 동시에 문수보살상을 봉안하였고, 이어 725년 동종을 주조하였다고 전합니다.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가 이곳에서 기도하던 중 문수보살을 만나 불치의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숭유억불 정책을 펼치던 조선시대에 세조는 친히 권선문을 작성하고 진여원을 확장하였으며, 이름을 '상원사'로 바꾸고 원찰로 정하여 문수동자상을 봉안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중창되다가 1951년에 입적한 방한암스님이 한국전쟁 때 병화로부터 상원사를 지켜낸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상원사의 문화재

상원사 동종 (국보 제36호)

신라 선덕왕 24년(725)에 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입니다. 높이 1.67m, 입지름이 91cm로 종신의 상대와 하대에는 화려한 당초문이 새겨져 있고 종뉴부에는 종뉴와 울림통이 있습니다. 종뉴(鐘紐)는 종을 거는 고리로, 일본과 중국의 종에는 용이 두 마리, 우리나라 종에는 한 마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또한 울림통은 우리나라 종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종의 위쪽에 4개의 유곽(乳廓)이 있으며 유곽 안에는 9개의 종유(鐘乳)가 있습니다. 종유 좌우에는 종의 이름과 조성 연대를 적어 놓았습니다. 종신에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천의를 흩날리며 날고 있는 '주악비천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종을 치는 부분인 당좌(撞座)에는 원형 테두리 안에 당초문 무늬와 연꽃의 자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원사 동종



상원사 동종 종뉴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국보 제221호)

상원사 문수전에 봉안되어 있으며 예배 대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유일의 동자상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유물에서 '조선 세조의 둘째 딸 의숙 공주 부부가 세조 12년(1466)에 이 문수동자상을 만들어 모셨다'는 내용이 발견되어 불상이 만들어진 시대와 유래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 불상 조성 양식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월정사 성보박물관)

상원사 중창권선문 (국보 제292호)

세조 10년(1464)에 세조의 왕사인 신미 등이 왕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하여 상원사의 중창을 발원하니, 이에 세조가 채색, 쌀, 무명, 베를 하사한다는 취지를 밝힌 글로 국왕의 어첩과 신료의 권선문 2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된 원문과 한글로 된 언해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조와 세자빈, 왕세자의 수결과 도장까지 찍혀 있어 세조 시기 당시 왕실과 사찰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사료이며 조선 왕실의 불교문화 포용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존하는 언해본은 가장 오래된 한글 필사본으로 초기 한글 서체 및 표기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상원사 중창권선문(월정사 성보박물관)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보물 제793호)

세조 12년(1466) 상원사에 봉안된 문수동자상에서 나온 복장유물로 발원문 두 장과 조선 전기의 복식과 불경 등의 전적류 등 총 23점입니다. 발원문에는 불상이 만들어진 이유와 만든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으며 임진왜란이 끝나고 절을 추가로 중수하고 보수한 기록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상류계층에서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적삼 두 점이 나왔으며, 함께 있던 황색 보자기는 불상에 들어갈 유물들을 싸는 데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구슬 3개와 사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여러 불상과 보살상의 조성 연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복식류는 조선 전기 의류의 현재까지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월정사 성보박물관)

FSC PRINTED WITH SOY INK

10.상원사와 오대암자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2

033) 332-6417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상원사와 인연이 깊은

세조의 이야기

상원사에는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와 관련된 설화가 많습니다. 이는 조선 초 숭유억불시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방의 산중 불교가 흥성했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상원사 관대걸이



세조는 온몸에 종기가 나는 병을 앓았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던 중 상원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상원사에 오르기 전 계곡물에 목욕을 하며 신하들을 모두 물리치고 지나가던 동자승에게 등을 밀게 하였습니다. 세조는 동자승에게 "임금의 옥체를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동자 승은 세조에게 "문수보살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한 후 사라졌습니다. 그 후 종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은 세조가 의복을 벗어두었던 곳이라고 하여 '관대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상원사 고양이석상



세조가 상원사를 찾아 법당에 들어서서 예불을 올리려는 순간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곤룡포 자락을 물고 세조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세조가 병사를 풀어 법당을 뒤지게 했고, 병사들은 법당에 숨어 있던 자객을 발견했습니다. 목숨을 구해 준 고양이를 위해 세조는 고양이상을 세우고 묘전(猫田:고양이 논)을 하사하여 고양이의 공을 치하했다고 하며 절에 바치는 쌀을 '고양이를 위한 쌀'이라는 뜻에서 '고양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고양미'가 '공양미'로 발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로 알아보는

오대암자

〈〈삼국유사〉〉에서 오대(五臺)암자의 역사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라의 왕자인 보천과 효명 두 태자가 예불과 염불로 수행하면서 다섯 봉우리에 올라 예를 올리려는데, 동대(東臺) 만월산(滿月山)에 1만의 관음보살의 진신이 나타났고, 남대(南臺) 기린산(麒麟山)에 팔대보살을 우두머리로 한 1만의 지장보살이 나타났으며, 서대(西臺) 장령산(長領山)에 무량수여래를 우두머리로 한 대세지보살이 나타났고, 북대(北臺) 상왕산(象王山)에 석가여래를 우두머리로 한 5백 대아나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대 풍로산(風盧山) 혹은 지로산(地盧山)에 비로자나불을 우두머리로 한 1만의 문수보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후에 보천 태자가 임종에 앞서

"동대 북쪽에는 관음방을 두어 1만 관음상을 그려 봉안하며 금경(金經), 인 왕반야경, 천수주를 독송하고, 관음경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원통사(圓通社) 라 하라"

"남대 남쪽에는 지장방을 두어 여덟 보살을 수반으로 1만의 지장보살 모습을 그려 봉안하고 지장경과 금강반야경을 독송하게 하고... 금강사(金剛社)라 하라"

"서대 남쪽에는 미타방을 두어 무상수여래를 수반으로 한 1만의 대세지보살을 그려 봉안하고 법화경(法華經)을 독송하게 하고 아미타불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수정사(水精社)라 하라."

"북대 남쪽에는 나한당(羅漢堂)을 두어 석가여래를 수반으로 한 5백 나한을 그려 봉안하고 불보은경과 열반경(涅槃經)을 독송하게 하고 열반경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백련사(白蓮社)라 하라."

"중대 중앙에는 문수보살 부동상(不動象)을 모시고 비로자나불을 우두머리로 한 36 문수보살을 그려 봉안하고 화엄경(華嚴經)과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을 독송하게 하고 문수보살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화엄사(華嚴社)라 하라."

라고 명했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이 아름다운

동대 관음암

동대 관음암이 자리한 뒷산은 만월산으로 월정사의 '월(月)'이 여기에서 유래하였을 만큼 동대 만월산의 달 뜨는 모습이 천하제일이라고 합니다. 관음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출가 수행자에게 하심(下心)*의 본보기로 알려진 구정선사의 토굴이 있습니다.

*하심(下心):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



북방 최초 비구니 선원

남대 지장암

남대 지장암은 1930년경 율노, 해노 두 비구니 스님이 찾아와 머물면서 생긴 비구니 선방입니다. 그 뒤 성진, 혜종, 정안 스님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75년 북방 최초 비구니 선원인 기린선원을 열어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1998년에는 혜총스님이 기린선원을 새롭게 중창하였습니다.



적멸보궁의 수호 암자

중대 사자암

중대 사자암은 문수보살이 지혜로운 동물의 왕인 사자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상원사의 적멸보궁에 속한 향각(香閣)*이었으며 분수승(焚修僧)**이 거처해 왔습니다.

1926년 한암 스님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자라났다는 단풍나무는 죽고 그 옆에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 향각(香閣): 대웅전과 그 밖의 법당을 맡아보는 사람의 숙소
**분수승(焚修僧): 부처 앞에 향을 태우며 불교의식을 집전하는 승려



코끼리 머리를 닮은

북대 미륵암

북대 미륵암은 멀리서 보면 코끼리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상두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고려 말까지 나한상이 봉안되어 있었고 그 후 지금의 주불인 미륵보살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북대가 미륵암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스님들의 참선처

서대 수정암

서대 수정암은 신라의 보천, 효명 태자가 수도하며 날마다 우통수의 물을 길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는 곳으로, 월정사의 '정(淨)'이 서대 수정암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으며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의 토굴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권근의 〈오대산서대수정암중창기〉에는 "우통수의 근원에 수정암이란 암자가 있는데, 옛날 신라 때 두 왕자가 이곳에 은둔하여 선을 닦아 도를 깨쳤기에, 지금도 도를 닦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거처하기를 즐겁게 여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강의 발원지

우통수(于筒水)

권근이 〈오대산서대수정암중창기〉에서 우통수를 언급한 이후 수많은 시와 문서들에서 한강의 발원지로 우통수를 꼽아왔습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람〉에도 권근의 기문을 인용하며 "오대산 서대 밑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곧 한강의 근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문신이자 서예가인 김창흡은 〈〈삼연집〉〉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통수를 찾아갔다. 외진 곳에 있는데 물빛이 깨끗하여 다른 샘보다 나은 듯 하다. 물 맛은 마찬가지로 달고 향긋하다. 세상에서는 한강 물이 우통수에서 발원한다고 하는데, 당초 발원지도 우통수를 선택한 데에는 필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혁진 외 1명, 2019, 오대산의 인문학, 도서출판 산책〉

제작 담당:자연환경해설사 이재경
감수:국립국어원 교수 김주미